

유아의 놀이성, 놀이주도성 및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

The Differences in Children's Play Behavior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ir Playfulness, Leadership and Communicative Ability*

고윤지(Yoon Ji Ko)¹⁾

김명순(Myoung Soon Kim)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children's play behaviors in terms of their levels of playfulness, leadership and communicative ability. The subjects were 152 children aged between 3 and 4, and their 20 teachers at 10 child care centers in the Seoul and Gyeonggi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play behaviors were related to the level of playfulness, leadership and communicative ability in 3 and 4 years old children. Among these children, those who scored highly in terms of their playfulness, leadership and communicative ability were involved more frequently in both 'group play' and 'symbolic play' whereas those who achieved lower scores were more frequently involved in 'solitary play' and 'functional play'. However, in case of 'constructive play', significant results were not found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t variables named in this study. 'Parallel play' and 'games with rules' were the only categories within which the findings revealed that children's play behaviors have shown different patterns according to the age of the child and to the levels of thos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mentioned above.

Key Words : 놀이성(playfulness), 놀이주도성(leadership), 의사소통능력 (communicative ability), 놀이행동 (play behavior).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논문을 확장한 것임.

¹⁾ 푸르니 분당 어린이집 교사

²⁾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young Soon Kim,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262,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kimms@yonsei.ac.kr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I. 서 론

유아의 일상생활은 놀이로 이루어진다. 놀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와 흥미를 표현하고, 자율성과 주도성을 연습하며, 자발적 동기로 인해 학습해 나가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놀이과정에서 유아는 주변세계를 탐색하고 실험하며 언어를 연습하고,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이 중에 직면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놀이는 유아의 발달을 주도하기도 하고, 발달과 학습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며, 때로는 유아의 발달정도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Johnson, Christie, & Yawkey, 1999). 즉, 놀이가 신체, 언어(Pellegrini & Boyd, 1993), 인지, 정서, 사회성(Connolly & Doyle, 1989; Pellegrini & Boyd, 1993), 확산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창의성(Barnett, 1990; Brown & Vaughan, 2010; Lieberman, 1965)등의 여러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은 '놀이'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놀이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가치 있는 매체이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인 것이다.

유아의 발달에 놀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달이 놀이에 기인한다고 여길 때, 유아의 놀이행동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한다(Johnson, Christie, & Yawkey, 1999). 즉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다른 요인들이 놀이와 더불어 놀이상황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의 놀이행동과 관련된 요인은 크게 놀이하는 유아와 놀이 환경으로 나눌 수 있고, 유아의 놀이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유아의 연령이나 성별, 놀이성, 주도성과

같은 내적성향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제공되는 물리적인 놀이 환경, 또래 및 교사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함께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인 놀이성(Playfulness)은 유아의 놀이행동을 일으키는 심리적 성향 내지는 태도를 뜻하는 개념으로서(Barnett, 1990), 유아의 각기 다른 놀이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놀이 그 자체에 대한 분석 외에도 놀이와 관련된 심리적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Mattews & Mattews, 1981).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놀이성은 행동을 통해 성격특성으로 그대로 드러나며, 다양한 상황과 과제에 걸쳐 신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했다(Rubin, Fein & Vandenberg, 1983). 또한 Lieberman(1965)은 놀이성을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과 유머감각의 다섯 가지 하위요소로 정의하였고, 놀이성은 이러한 하위 요소로 정의되는 단일 성격차원이라고 결론지었다.

유아의 놀이성은 놀이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이를 밝힌 연구는 소수 진행되었다. Farver(1992)와 Yoo(1994)은 놀이성이 상징놀이와 상관있다고 밝혔고, Han과 Park(2008)은 놀이성이 사회구성놀이와 관련 있고, 유아의 놀이성에 따라 놀이영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다르다고 하였다. 또 놀이성 하위요인 중 신체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이 높은 유아는 집단놀이를 많이 하였고,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신체적 자발성이 낮을수록 혼자놀이를 많이 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Kim, Yoo., & Lee, Cho, 2010). 이처럼 유아의 내적성향인 놀이성과 외적행동인 놀이행동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이론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유아의 사회적·인지적 놀이유형을 폭넓게 포함하여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고, 그와 놀이성과의 관계를 밝힌 실제적인 연구

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으로 둘 간의 관련성을 결론짓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기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속한 맥락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며 관계망을 넓혀가는 시기로, 유아는 놀이 집단 안에서 또래와 함께 놀이를 하며, 사회적 관계와 위계구조를 형성한다. 또래와의 놀이과정에서 유능한 놀이주도자는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동이나 주제를 제안하고 이끌며, 보다 복잡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놀이를 발전시킴으로써 놀이의 질을 높이는데, 이처럼 유아 놀이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특성 중 하나로서, 놀이과정에서 또래를 통제하거나 주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놀이주도성이라고 한다(Segal & AdCock, 1981).

놀이주도성과 놀이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놀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아의 기질(Cho, 2000), 성별(Kim, 2010), 놀이성(Lee, 2002), 성격과 인지양식(Kwon, 2002)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과, 놀이주도성을 인기도로 정의하고 인기도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을 관찰한 연구(Dodge, 1983; Kim, 2010; Putallaz & Gottmen, 1981)들이 있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모두, 자연스런 놀이상황이 아닌 실험적 상황에서 놀이집단을 배정하고 유아를 면접하거나,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실험적 상황에서의 연구들과 드물지만 자연적 상황에서 유아의 인기도에 따른 놀이행동을 관찰한 연구들은 사회극놀이와 같은 특정 놀이영역이나, Parten(1932)의 사회적 놀이의 관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Kim, 2000; Howes & Matheson, 1992), 그 연

구결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인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은 유아가 또래와 함께 놀이를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Burk, 1996). 의사소통능력은 유아가 부모, 교사 및 또래 등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이해하며, 자신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상대방의 반응으로부터 감시하고 조정해 나가는 언어 이상의 더욱 포괄적인 능력으로서, 유아에게 있어 언어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놀이가 되기도 하고, 또래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놀이집단을 구성하고 놀이를 지속하며 타협을 하는 도구가 된다(Connolly & Doyle, 1989; Black & Hazen, 1989; Kamii & DeVries, 1980). 또한, 유아는 언어의 사용을 통해 자신과 또래의 역할이나 상황을 사실적인 것에서 상상적인 것으로 변형하기도 하며, 새로운 놀이규칙을 만들기도 한다. 즉, 놀이와 언어는 유아의 사고가 표현된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강화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유아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또래의 이야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반응하는 의사소통능력은 또래집단 내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얻는 요인이 되며(Ladd, 1983),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요구나 생각, 느낌 등을 언어로 표현할 줄 알기 때문에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고, 또래와 즐겁게 놀이함으로써 더 큰 집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Girolametto, Weitzman, & Greenberg, 2004). 이처럼 또래와의 놀이상황은 유아가 의사소통능력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며, 또래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 궁극적으로 놀이상황에 있어서 유능한 놀

이주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과 놀이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그 대상이 일반유아가 아닌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능력 증진프로그램 효과연구(Lee, Lee & Shin, 2005; Parker & Asher, 1993; Saltz, Dixon & Johnson, 1977)가 많았고, 실험적 놀이상황이나 특정 놀이영역에서, 유아의 언어 유형과 놀이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Connolly & Doyle, 1989; Farver, 1992; Shin, 2003; Girolametto, Weitzman & Greenberg, 2004). 이처럼 유아기 놀이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능력과 유아가 실제로 참여하는 놀이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놀이상황에서 관찰되는 유아의 사회적·인지적 놀이행동에 관련되는 변인들을 좀 더 면밀히 탐색하여 각 놀이행동의 발달적·교육적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놀이유형이 고루 나타나는 만 3세와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놀이성과 놀이주도성,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라 놀이행동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유아의 특성과 그에 따른 놀이행동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유아의 놀이행동과 관련된 변인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놀이행동을 관찰 및 분석하고 적절한 제언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궁극적으로 놀이가 유아의 총체적 발달을 도모하고 직접 경험과 학습을 위한 바람직한 매체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놀이지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사회적·인지적 놀이행동은 놀이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사회적·인지적 놀이행동은 놀이주도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사회적·인지적 놀이행동은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76명(남아 41명, 여아 35명)과 만 4세 76명(남아 40명, 여아 36명)으로 총 152명의 유아다. 연구대상 기관의 학급 내 유아 수는 평균 20명 이었고, 만 3세의 평균연령은 47개월, 만 4세는 56개월이었으며, 전체 유아의 평균연령은 52개월이었다. 유아는 해당학급 내에서 남녀의 비율을 최대한 동일하게 하여 8명을 무선 선정하였다.

2. 연구 도구

1) 유아의 놀이행동 관찰

유아의 놀이행동은 Parten(1932)의 사회적 놀이와 Piaget(1962)의 인지적 놀이로 측정하였다. 본래 Parten(1932)의 사회적 놀이범주는 ‘혼자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의 총 4개 범주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합놀이’와 ‘협동놀이’를 ‘집단놀이’로 분류하여, 총 3개의 하위범주로 관찰하였고, 유아의 인지적 놀이행

동은 Piaget(1962)의 ‘기능놀이’, ‘구성놀이’, ‘상징놀이’, ‘규칙있는 게임’의 4개 하위범주로 관찰하였다.

2)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은 Barnett(1990, 1991)이 제작한 ‘아동의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를 Yoo(199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교사평정 하였다. 총 23문항으로, Lieberman (1965)에 의해 아동의 놀이성 하위범주로 밝혀진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의 총 5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23점~115점이며, 놀이성 척도 전체의 Cronbach α 값은 .94였다.

3) 유아의 놀이주도성

유아의 놀이주도성은 Park & Lee(2001)의 또래유능성 척도의 3가지 하위범주인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중에서 주도성의 하위범주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놀이주도성 척도는 또래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 효과적으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래 집단에서 놀이나 활동을 주도하고, 놀이를 재미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또래가 따라할 만한 놀이나 활동을 제안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상학급의 담임교사가 평소 유아의 행동을 관찰한 것에 기초하여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총 5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이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5점~25점이고, Cronbach α 값은 .96이었다.

4)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은 미국에서 전국적 규모의 NICHD 종단적 아동연구에 사용하였던 척

도(Caregiver Questionnaire Packet : CQP)를 Lee & Kim(1999)이 번역한 것 중, 유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의사소통능력 척도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의 총 18문항은 ‘유아와 교사의 의사소통’과 ‘유아와 다른 아동과의 의사소통’의 두 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되며, 개별 유아가 교사나 다른 또래와 언어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언어 이해, 언어 표현, 고쳐 말하기, 자연스런 표현, 듣기, 언어 유창성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유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이 11점~55점, ‘유아와 다른 유아와의 의사소통’이 7점~35점이며,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척도의 하위 범주별 Cronbach α 값은 유아-교사의 의사소통은 .95, 유아-다른 유아와의 의사소통은 .96이었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유아의 놀이행동 관찰방법 및 관찰척도의 하위범주별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연구대상이 아닌 기관 두 곳에서 아동학 분야 석사 1명, 공립유치원 교사 1명으로 관찰자 총 2명이 1, 2차 예비조사를 하였고 관찰범주가 일치된 횡수를 근거로 백분율을 산출하여 관찰자 간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97%였다. 본 조사는 10개 기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세와 4세 유아 152명과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각 기관을 방문하여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유아의 놀이행동을 관찰하였다. 관찰자는 유아의 놀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유아가 관찰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놀이행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약 5분 후 관찰을 시작하였다. 관찰대상 유아는 학급에서 남녀의 비율을 최대한 동일하

게 하여, 8명을 무선 선정하였고, 유아마다 임의로 번호를 부여한 후 번호 순대로 관찰하였다. 관찰은 시간표집법(1회에 20초 관찰, 10초 기록)을 사용하여 각 유아 당 매 4분마다 1회씩 총 20회를 평정하였고, 20초의 관찰 중 두 가지 이상의 놀이행동이 관찰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참여한 놀이행동을 주 놀이행동으로 간주하였다. 1회 관찰마다 인지적 놀이 유형 4개 항목과 사회적 놀이유형 3개 항목을 교차한 총 12개의 범주 중 하나의 범주에 해당되도록 평정하였으며 한 교실 당, 관찰 소요시간은 약 80분~90분으로, 모두 당일 관찰이었다. 관찰을 마친 후 담임 교사에게 관찰 시 대상 유아의 특징을 메모해 놓은 것을 토대로 해당 유아의 이름을 물어 놀이성, 놀이주도성, 의사소통능력 질문지에 해당 유아의 이름을 적어 배부하고, 1주일 후 방문 회수하였다. 교사평정으로 유아의 놀이성, 놀이주도성 및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이유는, 교사는 연구자보다 유아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유아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동일 연령의 여러 유아를 관찰할 기회가 있어 보다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박주희·이은혜, 2001). 분석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Window용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 별로 각각 일원변량분석으로 F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분석

유아의 놀이성, 놀이주도성, 의사소통능력 각각의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 30%를 상집단, 하위 30%를 하집단, 나머지 40%를 중집단으로

나누고, 각 변인 별 수준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 검증한 결과를 표에 각각 제시하였다.

1. 만 3세와 만 4세 유아의 놀이성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

Table 1에 의하면 사회적 놀이 중 혼자놀이의 경우, 만 3세는 놀이성 하집단($M = 9.15$)이 중집단($M = 4.25$)보다, 중집단이 상집단($M = .44$)보다 혼자놀이를 더 많이 했고, 만 4세는 놀이성 하집단($M = 6.44$)이 놀이성 중($M = 2.62$)·상집단($M = .08$)보다 혼자놀이를 더 많이 했다. 집단 놀이 역시 만 3세와 만 4세 모두 놀이성 상집단이 중집단보다, 중집단이 하집단보다 집단놀이를 더 많이 했다. 반면, 병행놀이는 만 4세($F = 12.56, p < .001$)에게만, 놀이성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놀이성 하집단($M = 5.60$)이 중($M = 2.35$)·상($M = 1.36$)집단보다 병행놀이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지적 놀이 중 기능놀이는 만 3세는 놀이성 중($M = 5.89$)·하집단($M = 6.04$)이 상집단($M = 1.76$)보다 기능놀이를 더 많이 했고, 만 4세는 놀이성 하집단($M = 6.24$)이 놀이성 중($M = 2.65$)·상집단($M = .96$)보다 기능놀이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놀이성 상집단($M = .964$)이 중집단($M = 5.17$)보다, 중집단이 하집단($M = 1.44$)보다 상징놀이를 더 많이 했고, 만 4세는 놀이성 상($M = 9.64$)·중집단($M = 8.54$)이, 하집단($M = 3.52$)보다 상징놀이 빈도가 더 높았다. 반면, 규칙있는 게임은 만 3세($F = 1.84, p < .05$)에게만 놀이성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놀이성 상($M = 1.84$)·중($M = 1.71$)집단이, 하($M = .59$)집단보다 규칙

<Table 1> Means and one way ANOVA according to the level of children's playfulness (N = 152)

	The level of children's playfulness	3-year olds (n=76)			F	4-year olds (n=76)			F
		High (n=25)	Medium (n=24)	Low (n=27)		High (n=25)	Medium (n=26)	Low (n=25)	
Play behavior		M(SD)	M(SD)	M(SD)		M(SD)	M(SD)	M(SD)	
Social Play	Solitary Play	.44 _a (.92)	4.25 _b (6.12)	9.15 _c (5.14)	23.08***	.08 _a (.28)	2.62 _a (4.11)	6.44 _b (6.67)	12.56***
	Parallel Play	3.04 (4.80)	5.42 (5.23)	5.96 (5.10)	2.43	1.36 _a (1.89)	2.35 _a (2.30)	5.60 _b (5.75)	8.90***
	Group play	16.20 _a (5.24)	10.79 _b (7.28)	2.56 _c (3.07)	42.39***	18.20 _a (2.08)	14.31 _b (6.23)	6.84 _c (7.40)	25.50***
Cognitive Play	Functional play	1.76 _a (2.72)	5.89 _b (4.04)	6.04 _b (8.10)	5.13**	.96 _a (2.13)	2.65 _a (3.11)	6.24 _b (5.99)	10.96***
	Constructive play	6.44 (4.99)	7.54 (4.96)	9.74 (5.40)	2.80	6.48 (4.53)	7.15 (5.17)	6.72 (6.57)	.10
	Symbolic Play	9.64 _a (4.64)	5.17 _b (5.22)	1.44 _c (2.01)	25.53***	9.64 _a (6.21)	8.54 _a (5.18)	3.52 _b (6.18)	7.76***
	Games with rules	1.84 _a (2.06)	1.71 _a (2.35)	.59 _b (1.05)	3.49*	2.56 (4.86)	2.40 (3.87)	.92 (1.47)	1.56

* $p < .05$. ** $p < .01$. *** $p < .001$. abc : 같은 문자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있는 게임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만 3세와 만 4세 유아의 놀이주도성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

Table 2에서와 같이, 사회적 놀이 중, 혼자놀이는 만 3세($F = 30.62, p < .001$)와 만 4세($F = 29.27, p < .001$) 유아의 놀이주도성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만 3세, 만 4세 모두 놀이주도성 하집단이 중·상집단보다 혼자놀이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행놀이 역시, 만 3세는 놀이주도성 중($M = 6.58$)·하($M = 5.68$)집단이 상집단($M = 2.08$)보다, 만 4세는 놀이주도성 하집단($M = 5.04$)이 중($M = 2.56$)·상집단($M = 1.60$)보다 병행놀이 빈도가

더 높았다. 집단놀이 또한, 만 3세($F = 45.88, p < .001$)와 만 4세($F = 45.11, p < .001$) 유아의 놀이주도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만 3세는 놀이주도성 상($M = 17.33$)집단이 중($M = 9.38$)집단보다, 중집단이 하집단($M = 3.29$)보다 집단놀이를 더 많이 했고, 만 4세는 놀이주도성 상($M = 18.04$)·중($M = 15.96$)집단이 하집단($M = 5.69$)보다 집단놀이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지적 놀이 중, 기능놀이는 만 3세($F = 10.02, p < .001$)와 만 4세($F = 16.06, p < .001$) 유아의 놀이주도성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만 3세와 만 4세 모두 놀이주도성 하집단이 중·상집단보다 기능놀이의 빈도가 더 높았다. 또한 만 3세는 놀이주도성

<Table 2> Means and one way ANOVA according to the level of children's leadership (N = 152)

The level of Children's Leadership		Three years children (n=76)			F	Four years children (n=76)			F
		High (n=24)	Medium (n=24)	Low (n=28)		High (n=25)	Medium (n=25)	Low (n=26)	
Play behavior		M(SD)	M(SD)	M(SD)		M(SD)	M(SD)	M(SD)	
Social Play	Solitary play	.42 _a (.93)	3.33 _a (4.55)	9.64 _b (5.77)	30.62***	.20 _a (.65)	.96 _a (2.11)	7.77 _b (6.31)	29.27***
	Parallel play	2.08 _a (3.38)	6.58 _b (5.65)	5.68 _b (5.10)	5.91**	1.60 _a (2.00)	2.56 _a (2.95)	5.04 _b (5.63)	5.36**
	Group play	17.33 _a (3.81)	9.38 _b (7.66)	3.29 _c (3.60)	45.88***	18.04 _a (2.26)	15.96 _a (4.42)	5.69 _b (6.99)	45.11***
Cognitive Play	Functional play	1.50 _a (2.26)	3.96 _a (4.72)	7.75 _b (6.82)	10.02***	1.04 _a (2.03)	1.92 _a (2.43)	6.73 _b (5.84)	16.06***
	Constructive play	6.29 (4.72)	9.25 (5.04)	8.29 (5.65)	2.04	7.12 (4.96)	7.20 (5.81)	6.08 (5.60)	.34
	Symbolic Play	9.96 _a (4.92)	4.92 _b (4.41)	1.68 _c (2.88)	26.48***	9.40 _a (6.10)	9.32 _a (5.72)	3.19 _b (5.35)	9.92***
	Games with rules	2.08 (2.48)	1.17 (1.79)	.89 (1.32)	2.73	2.50 (3.79)	2.36 (4.67)	.96 (.67)	1.36

*p < .05. **p < .01. ***p < .001. abc : 같은 문자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상집단(M = .996)이 중집단(M = 4.92)보다, 중집단이 하집단(M = 1.68)보다 상징놀이를 더 많이 했고, 만 4세는 놀이성 상(M = 9.40) · 중집단(M = 9.32)이, 하집단(M = 3.19)보다 상징놀이 빈도가 더 높았다.

3. 만 3세와 만 4세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

Table 3에서와 같이 사회적 놀이 중, 혼자놀이는 두 연령 모두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수준 하집단이 중 · 상집단보다 혼자놀이를 더 많이 했다. 또한 만 3세 의사소통능력 수준 상(M = 15.48)집단이 중(M = 11.17)집단보다, 중집단이 하집단(M = 2.89)보다 집단놀이를 더 많이 했

고, 만 4세는 의사소통능력 수준 상(M = 17.56) · 중(M = 14.52)집단이 하집단(M = 7.54)보다 집단놀이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병행놀이는 만 4세에게만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검증 결과 의사소통능력 수준 중(M = 2.96) · 하집단(M = 4.62)이 상집단(M = 1.64)보다 병행놀이 빈도가 더 높았다. 한편, 인지적 놀이 중 상징놀이는 만 3세(F = 11.98, p < .001)와 만 4세(F = 8.76, p < .001)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증 결과 만 3세와 만 4세 모두 의사소통능력 수준 상 · 중집단이, 하집단 보다 상징놀이를 더 많이 했다. 단, 기능놀이는 만 4세 유아에게만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의사소통

<Table 3> Means and one way ANOVA according to the level of children's communicative ability (N = 152)

the level of Children's Communicative ability		Three years children (n=76)				Four years children (n=76)			
		High (n=25)	Medium (n=24)	Low (n=27)	F	High (n=25)	Medium (n=25)	Low (n=26)	F
play behavior		M(SD)	M(SD)	M(SD)		M(SD)	M(SD)	M(SD)	
Social Play	Solitary Play	2.28 _a (4.99)	3.03 _a (4.86)	8.48 _b (5.64)	11.04***	.60 _a (2.60)	1.64 _a (3.11)	6.42 _b (6.07)	11.37***
	Parallel Play	2.88 (4.49)	5.42 (5.35)	6.11 (5.13)	2.95	1.64 _a (3.11)	2.96 _b (3.76)	4.62 _b (4.79)	3.62*
	Group play	15.48 _a (5.88)	11.17 _b (7.34)	2.89 _c (3.81)	31.94***	17.56 _a (4.85)	14.52 _a (6.03)	7.54 _b (7.12)	18.26***
Cognitive Play	Functional play	3.68 (7.45)	3.92 (4.80)	6.00 (4.21)	1.34	1.40 _a (3.43)	2.68 _a (3.07)	5.65 _b (5.74)	6.69**
	Constructive play	6.92 (5.04)	7.96 (5.41)	8.93 (5.31)	.95	6.32 (5.11)	7.24 (5.46)	6.81 (5.84)	.18
	Symbolic Play	8.00 _a (5.46)	6.37 _a (5.36)	1.89 _b (2.90)	11.98***	10.76 _a (6.46)	7.16 _a (5.68)	3.96 _b (5.22)	8.76***
	Games with rules	2.04 _a (2.01)	1.42 _a (2.24)	.67 _b (1.30)	3.50*	2.36 (4.37)	2.32 (2.99)	2.15 (3.68)	.55

*p < .05. **p < .01. ***p < .001. abc : 같은 문자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능력 수준 하집단(M = 5.65)이 의사소통능력 수준 중(M = 2.68) · 상(M = 1.40)집단보다 기능놀이 빈도가 더 높았다.

또한 규칙있는 게임은 만 3세에게만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능력 수준 상(M = 2.04) · 중(M = 1.42)집단이 하(M = .67)집단보다 규칙있는 게임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사회적 놀이 중 혼자놀이와 집단놀이, 인지적 놀이 중 상징놀이는 두 연령 모두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병행놀이와 기능놀이는 만 4세에게만, 규칙있는 게임은 만 3세에서만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구성놀이는 두 연령 모두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1. 만 3세와 만 4세 유아의 놀이성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

만 3세와 만 4세 유아의 사회적 놀이행동은 두 연령 모두 놀이성 수준이 높은 집단의 유아는 집단놀이를, 놀이성 수준이 낮은 집단의 유아는 혼자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성의 하위 요인 중 신체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이 집단놀이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고, 신체적 · 사회적 자발성과 유머감각이 낮은 유아가

혼자놀이나 방관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고 언급한 연구들(Kim, 2000; Kim et al., 2010)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병행놀이는 놀이성 수준이 낮은 만 4세 유아에게만 유의한 수준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만 3세는 병행놀이가 유의하게 많았고, 만 4세는 집단놀이가 유의하게 많았다는 Kim et al(2010)의 연구와 연령이 증가하면서 혼자·병행놀이는 감소하고 집단놀이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Pellegrini & Boyd, 1993; Rubin, Watson & Jambor, 1978)의 맥락에서 해석해 본다면, 만 4세의 발달특성 상,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주변에 또래가 있을 때 따로 놀이기 보다는 또래와 협동하여 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놀이성 수준에 따른 인지적 놀이행동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면, 두 연령 모두 놀이성 수준이 높은 집단의 유아는 상징놀이를, 놀이성 수준이 낮은 집단의 유아는 기능놀이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상징놀이의 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상징놀이는 놀이성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Farver(1992)의 연구와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집단상징놀이를 많이 한 반면, 혼자기능놀이는 적게 했다는 Kim et al(201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 본래 기능놀이는 사물을 전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운동연습으로서(Piaget, 1962),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놀이감을 융통적, 독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 자발성과 비교적 관련성이 적은 놀이형태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규칙있는 게임은 놀이성 수준이 높은 만 3세 유아에게만,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고, 만 4세도 같은 양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 3세경에는 상호 교환하는 규칙 수행능력이 없어 규칙있

는 게임이 불가능하고(Zelazo & Fry, 1997), 대부분 정해진 규칙 내에서 순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 규칙있는 게임은 놀이에서의 자발성 또는 놀이성 하위요인 중 즐거움의 표현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연구(Kim et al, 2010)와 상반된 결과다. 그러나 규칙있는 게임은, 유아가 게임에 포함된 사회·인지적 기능을 이해하고, 규칙에 기초한 승패를 판단할 수 있어야 놀이가 이루어지므로(DeVries, 1980), 본 연구의 결과를 놀이성 하위요인 중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으며, 만 3세도 수준에 차이는 있으나 규칙수행이 가능(Zelazo & Jacques, 1996; Zelazo & Reznick, 1991)하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처럼 유아의 놀이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아의 개인적 특성인 놀이성을 고려하는 것은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실제에서 개별 유아의 타고난 놀이성향에 따른 적절한 지도를 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2. 만 3세와 만 4세 유아의 놀이주도성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

만 3세와 만 4세 유아의 사회적·인지적 놀이행동은 놀이주도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놀이주도성 수준이 낮은 유아는 혼자놀이와 병행놀이, 기능놀이를 많이 했고, 놀이주도성 수준이 높은 유아는 집단놀이와 상징놀이를 많이 했다. 이는 유아의 놀이와 또래 집단에의 수용정도는 상관이 있다고 언급한 연구들(Kim, 2000; Bierman & Furman, 1984)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놀이가 실제로 유아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성공적으로 하는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사회성이 발달된

유아의 놀이가, 사회성이 덜 발달된 유아의 놀이와 다른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어렵지만, 유아들의 놀이행동에서 사회적 수용정도의 실마리는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자서 단순히 사물을 조작하는 혼자놀이와 기능놀이를 많이 하는 만 3-6세 유아들은 교사에 의해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정 받았다(Howes, 1992). 반면, 사회적·인지적으로 발달된 놀이형태인 규칙있는 게임이나 상징놀이와 같은 집단 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유아는 주도적이며, 또래에게 인기 있고 사회적으로 성숙한 유아로 평정 받았다(Kim, 2000; Rubin et al., 1983)는 점이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는 주도적으로 지도력을 행사하고 협동적인 태도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유아는 집단놀이 빈도가 높고, 새로운 역할과 상황을 협상하고 창조해 내는 상징놀이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인기가 없는 유아는 놀이집단에 수용되지 못해 혼자놀이 하는 빈도가 높고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거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반복적 기능놀이나 구성놀이를 하는 빈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들(Dodge, 1983; Kim, 2000)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사회적 놀이 중 병행놀이는 놀이주도성 수준이 낮은 집단의 유아에게 많이 나타났고,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만 3세는 놀이주도성 중집단에서, 만 4세는 놀이주도성 하집단에서 병행놀이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유아의 놀이 발달에 대한 연구들(Howes & Matheson, 1992; Parten, 1932)에서 보고된 발달적 순서 및 시기와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즉, 만 4세의 발달특성 상 또래와 협동하여 놀이하는 것이 보편적이기에, 놀이주도성이 낮은 하집단 유아가 병행놀이에 많이 참여했을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고, 만 3세 유아의 병행놀이는 협동놀이로 전이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놀이로서, 유아가

집단놀이를 하도록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는 Bakeman과 Brownlee(1980)의 연구결과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3. 만 3세와 만 4세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

만 3세와 만 4세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높은 유아는 집단놀이를,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낮은 유아는 혼자놀이와 병행놀이를 많이 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혼자놀이 빈도가 높은 유아는 집단놀이에 참여하려할 때 의사소통과 양보, 타협의 어려움을 보이며 친구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유아는 협상능력이 낮아, 또래와 놀이를 시작하더라도 방관하거나 이탈하게 되어 놀이에서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Black & Logan, 1995; Girolametto et al., 2004; Gottman et al., 1975)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물론, 유아의 혼자놀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능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회적 능력이 결핍된 위축된 놀이행동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 생각, 느낌 등을 언어로 잘 표현할 줄 아는 유아는 관계 맺기와 정적상관이 있고, 언어적 기술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는, 또래와의 대화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선행연구들(Black & Logan, 1995; Black & Hazen, 1989)을 토대로 생각해볼 때, 성공적인 의사소통능력은 유아의 놀이행동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만 3세는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중집단, 만 4세는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하집단인 경우에 유의한 수치로 병행놀이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만 3세는 병행놀이, 만 4세는 집단놀이가

발달상 우세한 놀이(Parten, 1932; Howes & Matheson, 1992)이므로 의사소통능력은 만 3세 보다는 만 4세의 놀이행동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인지적 놀이행동 역시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높은 집단의 유아는 상징놀이를, 낮은 집단의 유아는 기능놀이를 많이 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상징놀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역할과 상황에 대한 ‘언어적 함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언어사용을 통해서 역할이나 상황을 사실적인 것에서 상상적인 것으로 변형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는 견해(Connolly & Doyle, 1989; Kamii & DeVries, 1980; Saltz, Dixon, & Johnson, 1977)로 뒷받침되며, 이는 곧 유아기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쉬운 접근은 상징놀이임을 시사한다. 또, 기능놀이는 사물 없이 혹은 사물로 하는 반복적, 전형적인 놀이(Piaget, 1962; Similansky, 1968)이기에 성공적인 의사소통능력이 놀이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가장 높은 발달단계의 인지적 놀이인 규칙있는 게임과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 두 연령 모두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높은 집단의 유아가 규칙있는 게임을 많이 했지만, 특히 만 3세 유아에게만 의사소통능력 상·중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규칙있는 게임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칙있는 게임은 구성된 간 합의된 규칙으로 놀이가 진행되는데(Gallenstein, 2003), 함께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이 필수적이며, 자연스레 의사소통능력이 발달하게 된

다는 견해로 뒷받침해 볼 수 있으며, 만 3세경에는 규칙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주장(Zelazo & Fry, 1997)을 반박하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유아의 놀이성, 놀이주도성,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라 유아의 놀이행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일부 다른 양상을 보인 부분도 밝혀졌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52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 주도성,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기에, 본 결과를 인과관계로 단정 짓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 유아의 놀이성, 놀이주도성, 의사소통능력이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그 경로를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변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직접 관찰을 통해 유아의 놀이성, 주도성,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고, 이는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유아의 특성에 따른 놀이행동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놀이행동을 관찰 및 분석하는데 실제적 자료로 뒷받침되어, 자발적인 놀이실황동에서 발달적으로 적합하게 유아를 안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놀이가 유아의 총체적 발달을 도모하고 직접경험과 학습을 위한 바람직한 매체로서 기능하기 위해 유아의 놀이성, 놀이주도성, 의사소통능력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놀이지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Bakeman, R., & Brownlee J. R. (1980). The strategies use of parallel play : A sequenti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1*, 873-878.
- Barnett, L. A.(1990). Developmental play norms : A repl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 99-103.
- Bierman, K. L., & Furman, W. F. (1984). The effects of social skills training and peer involvement on the social adjustment of pre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5*, 151-162.
- Black, B., & Hazen, N. L.(1989). Preschool peer communication skills. The role of social status and interaction context. *Child Development, 60*, 867-876.
- Black, B., & Logan, A. (1995). Links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in mother-child, father-child, and child-peer interaction and children's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66*, 255-271.
- Brown, S. & Vaughan, C. (2010). *Play : How it shapes the brain, opens the imagination, and invigorates the soul*. New York : The Penguin Group, Yon, M. N. (translation). Seoul : 흐름출판사.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09).
- Burk, D. I. (1996). Understanding friendship and social interaction. *Childhood Education, 72*(5), 282-285.
- Cho, S. M. (2000). A Study Child's Play Styles according to Tempera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Connolly, J., & Doyle, A. (1989). Negotiation and enactment in social pretend play : Relation to social acceptance and social cogni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 289-302.
- Dodge, K. A.(1983). Behavior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Farver, J. A. (1992). Communicating shared meaning in social pretend pla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4), 501-516.
- Gallenstein, N. L. (2003). Creative construction of mathematics and science concepts in early childhood. Olney, MD : ACEI.
- Girolametto, L., Weitzman, E., & Greenberg, J. (2004). The effects of verbal support strategies on small-group peer interaction. *Language, Speech & Hearing Service in School, 35*(3), 254-268.
- Gottmen, J., Gonso, J., & Rasmussen, B. (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 Han, S. S., Park, J. H. (2008). Relationship of child's gender, playfulness, temperament level of development and quality of social-constructive pal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5), 209-230.
- Howes, C., & Matheson, C. C.(1992).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competent play with peer : Social and social pretend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61-974.
- Johnson, E. J., Christie, J. F., & Yawkey, T. D. (1999).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ew York : Longman.
- Kamii, C., & DeVries, R. (1980). Group games in the early education : Implications of Piaget's theory. Washington, DC : NAEYC.

- Kim, M. S., Yoo, J. E., Lee, M. J., Cho, H. L. (2010). A Study on Young Children's Free Play Behaviors at the Same-aged Classrooms : The Relationship to Learning area, Play Mate and Playfuln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5(3), 75-98.
- Kim, S. Y. (2000). Relationship of child's friendship quality, peer interaction and play behavior.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3), 47-66.
- Kim, Y. H. (2010). Mutual interaction and behavior of peer play based on popularity and gender of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won, J. Y. (2002). Study on Children's Play Styles According to Cognitive Styles and Personality Typ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University, Seoul, Korea.
- Ladd, G. W. (1983). Effectiveness of a social learning method for enhancing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and peer acceptance. *Child Development*, 52, 171-178.
- Lee, Y., & Kim, M. S. (1999). A study on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s and child development in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 8.
- Lee, Y. J. (2002). Study about difference of playfulness and play style according to young children's popula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J., Lee, J. S., & Shin, E. S. (2005). The Effects of Group Game Play based on Picture Story Books on children's competences of Communication and Behavior Regulation. *Duksung journal of social sciences*, 11, 147-172.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 219-224.
- Park, J. H., & Lee, E. H. (2001). Development of a Peer Competence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 221-232.
- Parker, J.,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ellegrini, A. D., & Boyd, B. (1993). The role of pla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education Issues in definition and function. In B. Spode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young children(pp. 105-121)*. NY ; Mcmillan.
- Rubin, K. H., Fein, g. G., & Vandenberg, B. (1983). Play. In P.H. Mussed(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694-774). New York : Wiley.
- Rubin, K. H., Watson, K. S., & Jambor, T. W. (1978). Free play behaviors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534-536.
- Saltz, E., Dixon, D., & Johnson, J. (1977). Training disadvantages children on various fantasy activities : Effects on cognitive functioning and impulse control. *Child Development*, 48,

- 367-380.
- Shin, E. R. (2003). Peer Conflict, Internal State Talk, and Communicative Strategies in Pretend Pla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 123-133.
- Yoo, E. Y. (1994). *The Observation Study on Children's Pretend Play and Teacher's Interven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Zelazo, P. D., & Frye, D. (1997). Cognitive complexity and control : A theory of the development of deliberate reasoning and intentional action. In M. Stamenov. (Ed.), *Language structure, discourse, and the access to consciousness* (pp.113-153). Philadelphia, PA : John Benjamins.
- Zelazo, P. D., & Jacques, S. (1996). Children's rule use : Representation reflection, and cognitive control. *Child Development, 12*, 119-176.
- Zelazo, P. D., & Reznick, J. S. (1991). Age-related asynchrony of knowledge and action. *Child Development, 62*, 719-735.

2012년 10월 31일 투고, 2013년 1월 28일 수정
2013년 2월 6일 채택